

# 1 보령시의회, 언론인과의 만찬 간담회 개최

## -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및 2024년 의회 추진 시책 공유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2024년 언론인과의 첫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박상모 의장을 비롯한 의원, 지역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의장은 직접 지난해 주요 의정 성과와 2024년 의회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시정 및 의정 현안에 대한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의회는 2024년 의회 운영 시책으로 ▲의정 토론문화 활성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 ▲ 사전 심사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 진행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재충전의 날” 운영 등 내실있는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9대 보령시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13회, 98일간의 회기 일정 동안 의결안건 131건, 의원발의 조례 30건, 5분 발언 1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은 2022년 총 214건에 비해 2023년 278건으로 약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모 의장은 “언론인들 덕분에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의회와 언론인이 점등하는 이 순간 2024년의 보령 시민들은 더욱 행복하고 빛이 날 것이라며, 시민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말했다.

# 2 보령시의회 의원 및 직원, 2024년 첫 직무교육 참석

## - 박상모 의장,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 역량 위한 다양한 교육 지속 추진할 것”

보령시의회 의원과 직원 30여명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석했다.

지난 27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정 연수센터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참여가 어려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민간협력을 통한 로컬 브랜드의 성공전략 ▲예·결산 심사 등의 핵심 직무교육 ▲청중을 사로잡는 의원들의 스피치 역량 향상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이론 및 실습과정 ▲알기쉬운 조례안 심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로컬브랜드 성공전략 교육을 담당했던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조정민 부장은 발길이 끊겼던 예산 상실시장을 현재 전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시장으로 변화시킨 노하우를 통해 로컬 브랜드의 성공 전략과 각 지역별 맞춤 전략에 대한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지방의회 핵심 직무인 예·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전문강사를 통한 심화 교육으로 주도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3 보령시의회, 3월 1일자 수시인사 단행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2024년 상반기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영우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직을 받게 되었으며 전범준 주무관은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승진 임용되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고, 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